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의 봉사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연합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준태 편집국장: 조선근

'98 찬양대 여름수련회

영혼이 실린 찬양의 산제사를 위하여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10개 찬양대에서

'98 찬양대 여름수련회가 7월 2일 크로마하프·만들린 찬양대를 시작으로 하여 8월 15일까지 총 10개 찬양대에서 진행된다.

그동안 교계적으로 총련 찬양대는 영감어린 찬양과 헌신으로 잘 알려져 왔다. 게다가 작년 8월 김성관 위임목사가 부임한 이후로는 더욱더 찬양 사역이 격려되어 왔고 그에 따라 새로운 변화와 성숙이 계속되고 있다. 장로총장단, 안수집사총장단을 비롯하여 각 부서와 기관들에서 준비된 금요집회의 다양한 특별찬양을, 주일 2부에서 5부예배까지 진행되는 예배전 찬양들, 총련 찬양대의 전문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신설된 찬양감독직, 대학·청년부가 중심

이 된 벨벳찬양대의 신설, 그리고 5부예배가 시작된 이래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온 고동부 예쁜 찬양대 등이 그 변화와 성장의 주역들이다.

찬양은 산제사의 정경에서 표현되는 가장 정화된 기도로 표현되곤 한다. 따라서 영혼이 실린 생명의 찬양이야말로 살아 있는 교회의 표징이다.

이번 찬양대 여름수련회를 통해서 총련의 모든 찬양대가 더욱더 영감어린 찬양으로 준비되어 산제사로 드러질 수 있도록 찬양대원뿐 아니라 온 성도들도 기도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다. 각 찬양대의 수련회 기간 및 장소, 장사는 아래와 같다.

7월 5일 맥추감사주일 제4차 성찬식

다음주인 7월 5일은 맥추감사주일이다. 이 날은 또한 98년도 제4차 성찬식이 거행되는 주일이기도 하다.

성도들은 감사로 가득한 마음을 회복하고 정결하게 준비된 심령으로 맥추감사주일 및 성찬회에 참여해야 하겠다.

성경연구원 중강 총 463명이 수료

'98 전반기 성경연구원 강의 대부분이 25일(목)을 기해 종강되었다.

바른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준비되기 위해, 또 말씀을 알고 행하는 성도로 온전히 세례되기 위해 등록하여 열심히 수강한 성도들 중 일정한 출석일수를 채운 수료자는 총 463명으로써 이는 개강시 등록자 574명의 80%에 해당된다.

교정전도회 공주교도소 특별전도집회

지난 6월 22일(월)에 교정전도회는 공주교도소 특별전도집회를 가졌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전도집회를 통해 김재철 목사(10교구), 교정전도회 지도자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구원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음을 힘있게 전하였다.

한편 금번 집회의 예배참석자 중에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결신자는 총 80여명에 달했다. 총련의 성도들은 결신자 전원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교정 전도의 사역을 위해 시간과 물질의 섬김을 계속해야 하겠다.

농어촌 전도대 훈련 및 파송예배

- 일시: 6월 28일 오후 3시 30분
7월 5일 오후 3시 30분
(교·대·청 대원은 5부예배까지 후)
- 장소: 베다니 홀
- 대상: 교구 및 교·대·청 농어촌 전도대원
- 파송: 7월 12일 찬양대배시

7월 기도원 사역

김병대 목사
(7교구, 성경연구원 지도)

소망부 여름수련회 6월 29-30일 갈릴리홀

'98 소망부 여름수련회가 6월 29일(월)과 30일(화) 양일에 걸쳐 갈릴리홀에서 진행된다.

'감사와 기도'를 주제로 하는 이번 수련회를 맞아 김광남 장로(소망부 부장)는 '믿음의 선진들이 모인 소망부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모범을 보이는 공동체로 굳게 다져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제언으로 소망부 식구들을 초청하고 있다.

한편 금번 수련회의 강사는 소망부 지도자 성기는 이종태 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가 맡게 된다.

제1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 및 수련회

1. 일시: 8월 19일(수) 16시 ~ 21일(금) 22시
2. 장소: 총련교회 및 총련기도원
3. 강사: 총련교회 찬양대 지도자, 교역자, 찬양감독 등 13명
4. 강의: 깊이 있는 실기 교육 및 영성훈련
5. 자격: 본 교단 소속 교역 중 출석교인 300명 미만 교회나 찬양대원 30명 미만인 교회의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
6. 신청 접수: 7월 18일(1차 마감) 총련교회 찬양위원회

해외입양인 모국방문단 7월 4-5일 우리 교회 방문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초청하는 해외입양인 모국방문단이 7월 4일 오후 4시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이들은 4일 저녁을 각 성도들의 가정에서 지낸 후, 5일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유아기때 해외로 입양되어 급변에 양부모와 함께 모국을 방문하는 이들은 대부분이 10대 청소년들이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총 237가정 65명에 달하는 이번 손님들을 위해서 총련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민박가정을 신청받았고, 이에 따라 현재는 237가정 전원이 총련 성도들의 가정에서 묵을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이다.

이들 해외입양인들이 모국 방문을 통해서 고향의 따뜻한 사랑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은총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민박가정으로 자원한 성도들뿐 아니라 이들과 접촉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다한 사랑과 배려로 이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단기선교 방글라데시와 수단팀 출국

방글라데시팀이 지난 25일(목) 아침 6시에 교회를 출발하여 9시 비행기편으로 선교지역을 향해 출국했다.

마침 장마의 시작과 더불어 떠나게 된 방글라데시팀은 우기를 맞아 많은 비를 맞아야 할 현지에서의 상황을 미리 겪는 축복을 받으며 출국하게 되었다. 이들은 7월 4일(토)에 귀국할 예정이다.

또한 27일(토)에는 수단팀이 출국했다. 특히 수단팀은 팀원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섭씨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와 해충의 위험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교 현지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팀원들은 생명 존엄한 가운데 복음 전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총련의 모든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계속해서 뜨거운 기도로 지원해야 하겠다(4면 참조).



김창인 목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상과 남은 자

(이사야 24:1-23)

“누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남은 자가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남은 자가 됩니다. 셋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많이 받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넷째로, 영적 순서를 바로 알아야 남은 자가 됩니다.”

본 장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남은 자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세상의 형편이 어떠한가

① 세상은 공허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1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땅이 공허하게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큰 건물들과 찬란한 문화시설들을 대중에 떠 돌이 날아가듯이 없어 흠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늘날 땅 위의 찬란한 것들이 바람 앞에 거가 날아가듯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땅이 공허하게 됩니다.

② 사람들은 모두 일반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인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인 것이며”(2절)

사람끼리 비교하면 인물이 예쁜 사람, 몸이 튼튼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인간들 사이에 잘나고 못나고 차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여서 잘한 사람과 못난 사람, 지도자와 지도를 받은 사람, 고리대금을 하던 사람과 이장돈을 몰지 못하여 차압을 당하던 사람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이 심판은 철저하여 피하거나 면할 자가 없습니다.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2)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5절)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므로 심판을 받습니다. 천하에 있는 만물이 심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만물이 지리워져서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에 만물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모르고 범한 죄, 알고도 욕심이나 감정 때문에 어긴 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꾸민 죄 때문에 세상은 심판을 당합니다.

(3)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유이 흘렀던 자가 다 탄식하며”(7절)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가 있으나 마실 사람이 없게 되고, 또 좋은 포도원이 있으나 가꿀 사람이 없게 됩니다. 또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2. 남은 백성의 구원

세상이 심판을 받으나 남은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줄 알았으나 거기서 못이 남았습니다. 홍수가 말리 않은 세상이 물에 잠겨 전멸한 줄 알았으나 노아의 식구가 남았습니다. 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불 때에 남은 것은 죽정이가 아니라 안락이고 홍수가 올 때에 남은 자는 명령대로 방주를 예비하고 고안한 난 말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남은 자가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남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일을 잘 지키고 온전한 심정을 버리고 행실로 순종한 자가 남습니다. 그러고 고만하고 욕심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고 거역하면 망합니다. 셋째로, 절개를 지키며 남은 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많이 받고 환난과 핍박도 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가 남게 됩니다. 넷째로, 영적 순서를 알아야 남은 자가 됩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욕심보다 영혼을 귀한 줄로 알고 세상보다 천국이 귀한 줄로 알고 자신이 매맞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심판에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성의 네 종류의 사람은 심판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세상이 전부 망할 때에 천국 천지에 참여합니다. 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날에 영광스러운 구원에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3. 죄인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한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으나 바로 살지 못하던 죄인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1) 어떤 죄인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① 재물을 행하는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 재물자가 재물을 행하도다 재물자가 심히 재물을 행하도다 하였도다”(16절)

“재물”이란 외적으로 꾸뚠다는 말입니다. 간판은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이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판은 애국자이지만 내용은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흠혈귀입니다. 간판은 고아원, 양로원 등 자선사업을 하는데 내용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물자를 두 말하지 않고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 첫째로, 두려움에 사로 잡힙니다(17절). 둘째로, 함정에 빠지고 율법에 걸립니다(18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하늘에는 번개들이 “번쩍” 하고 땅 속에서는 지진이 “쿵쾅” 터지는데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몸에 병든 질병의 짐은 의사가 고쳐줄 수 있고 육신이 죽고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병과는 상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죄에 걸린 사람은 세상에서도 늘 가슴에 자욱함이 붙고 세상을 떠나면 지옥불이 영원히 그를 태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짐을 걸어진 인간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까지 죄를 범하도록 애를 쓰니 그 죄짐을 어떻게 벗길지가 벗이 버릴 수가 없습니다.

② 마귀를 심판하십시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발하시며”(21절)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③ 왕들을 심판하십시오.

“...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욕에 모일같이 모욕을 입고 욕에 갇히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21, 22절)

땅 위에 악약을 퍼붓혔던 불의한 세력을 가졌던 왕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2) 남은 자가 거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어떠한가

“...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23절)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잘 믿던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의 빛이 필요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 살게 됩니다.

지구대머리의 체질이 녹아지는 날에 땅 위에 잘났다고 뽐내던 사람들이 언덕이 산아 나를 가리우라 하며 아우성을 치는 날에 남은 자들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해와 달의 빛이 필요없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4장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철저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죄없고도 고생을 하지만 나는 죄를 범해도 잘 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높고 낮은 사람없이, 잘나고 못난 사람없이 공평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고 거짓말도 면할 수도 없도록 철저하게 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순해를 끼치는 자는 되지 말아야 기쁘게, 알고도 반역을 일삼는 자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나와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지난 날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몰라서 잘못한 죄도 회개하고, 알고 어긴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당하던 만물에까지 죄를 주어 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와 여러분은 만물에게까지 순해를 끼치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풀 한 포기나 나 때문에 당하던 만물입니다. 우리는 만물에게 순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순해를 끼치지 않도록, 영생은 남에게 유익과 혜택을 입히며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절개를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욕심보다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보다 천국이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개인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 지와 여러분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 준비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 성 목사

속죄의 피

(레위기 17:1-16)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속죄의 피는 감히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귀한 속죄의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피는 은혜를 향한 준비

속죄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의미심장한 요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11절의 말씀은 “속죄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적 선언으로써 죄사함을 위해 짐승의 피를 쏟아내는 경우에 장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죄로 더럽혀진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하심으로써, 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교분을 위한 규례인 것입니다.

본문 전체를 통해 강조되는 중대한 의미는 피의 신성함입니다. 구약은 특별히 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없으리라”(10절). 피의 중요성이 잘 나타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피에 관한 법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들과 살고 있는 모든 타국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을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13절). 모든 피는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암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피를 새끼 짐승의 피로 바꾸어 그 피를 새끼 짐승에게 주어 먹게 함은 너희에게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피를 회막 안 여호와와 단에 뿌리고 그 기쁨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5-6절). 이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우거하는 타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8-9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들은 구원의 상징으로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발랐습니다(출 12장). 피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인하여

그들은 피를 먹는 것을 엄격히 금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죄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11절). 그리고 또한 우리가 피로써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그 피의 관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구약의 피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과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핵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를 통한 속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으며 인간은 그 죄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무능함을 대신하여 죄를 대속할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순전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곳곳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창상 8:6; 시 14:3; 롬 3:23). 더 나아가서 그 죄의 삶은 사망입니다(롬 6:23).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선언합니다(사 59:2; 함 1:13). 죄인된 인간의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의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보혈은 이토록 중요하입니다. 인간은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보혈

사람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행해야 했던 복잡한 제사 의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에서 드러났던 짐승들의 피가 온전치 못한 것을 없애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제사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10). “새 언약의 중보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히 12:24). 참으로 엄청난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른 어떤 죽음과도 확연히 구별됩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게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히 5:7-9).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 흠물이 없은즉 사람이 없나니라”(히 9:22).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의 제사보다 월등한 가치가 흠된 보혈이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벧전 1:18, 21; 롬 5:9). 우리에게는 더 이상 대제사장도 짐승의 피도 필요치 않습니다. 생명을 바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믿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물으로 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롬 5:9-10).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 곧 죄인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명백히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마귀의 모든 계책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자리에서 주셨고 그들이 받을 정벌을 대신 감당하시므로 그

들이 더이상 정벌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임할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만찬

그러므로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고전 11:17-3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요 6:54). 하나님께서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며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살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오직 그 분만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총현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중요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속죄의 피는 감히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귀한 속죄의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정갑신(목사, 출판국·교육연구소·중등2부 지도)



○ 라는 우리의 피 같은 젊은이들과 사랑하는 동료들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보내는 자'는 단순히 보내고 마는 자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곧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는 자와 한 영혼이 되어 보내는 자의 전인격이 함께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 무엇보다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투의 저자로 유명한 티모씨 위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나는 가르칠 줄도 모르고 피아노도 못치고 ...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기도밖에 할 줄 모른다'라고 말할지만, 그 말은 '내에게는 소중도 없고 수류탄도 없고 대포도 없습니다. 내에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동료들을 사단의 체계가 낡아는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대포로 끊임없이 지원사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다. 보내는 선교사들은 현지에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사단의 체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가득 임하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2. 격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전교회가 하나가 되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금식기도는

선교지로 가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금일에 단기선교팀을 후원하는 어느 교구는 금식기도하는 기도부대가 구성되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격려입니다. 또한 떠나는 이들에게 적절한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역을 하길 줄 믿습니다"라든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등 적절한 말을 찾

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격려의 말을 할 때, 과도한 기대감을 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일 하나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것들의 소중한 의미들을 찾도록 격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격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는 선교사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기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다녀온 선교사의 말을 경청하는 것으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계속적인 관심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단기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들이 단기선교에서의 경험을 잘 정돈하고 자신의 선교비전을 꾸준히 성숙시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와 격려와 관심으로 후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이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일은 자기 전보다 더 나은 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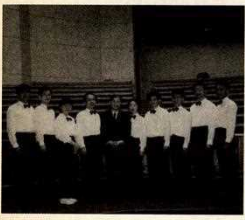
단기선교 이모저모

금요집회 오세요!

매주 금요일집회에 단기선교팀원들이 그 동안 준비해온 현지 언어로 찬양을 드리고 있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 아랍어, 방글라데시어 등등.

낯선 언어로 부르는 찬양이지만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금요일집회가 은혜를 다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집회(26일)에는 수단 단기선교팀원들이 '신자되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를 아랍어와 영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 금요일집회에서의 찬양은 단기선교팀의 헌신을 더욱 뜨겁게 했다. 금요일집회 후 한자리에 모인 중국1팀.

조급한 참아주세요.

요즘 선교단 4층 복도에는 구호물품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 날씨가 더운데 복도를 막고 있는 물건을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겠으나 각 선교지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것이기에 조급한 참아주시기를 바란다.

도움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단기선교를 통하여 각 교구는 물론 부서마다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

기도로, 물질로, 구호물품으로 어찌하든지 단기선교를 돕고자 선교위원회로 찾아오는 성도님들을 보며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점차 확산되어지고 있는 선교의 불길을 확인한다.

단기선교 복음1오인 중국1팀이 29일(월) 오후 3시 50분에 귀국한다.

복음의 열매를 가득 담고 돌아온 중국1팀의 사역 보고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준비할 계획이다.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방글라데시팀 25일(목) 출발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이 25일(목) 새벽 6시에 교회를 출발, 오전 9시 비행기로 방글라데시를 향해 출발했다.

박경환 목사, 정홍식 장로, 정희종 집사와 대학부의 김은미 자매, 박근호 형제, 이종원 형제, 신유원 자매, 류지영 자매, 김지이 자매, 이원호 형제, 최미영 자매로 구성된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은 2명씩 짝을 지어 민박을 하며 현지

인 직접 선교에 나선다. 귀국 날짜는 7월 4일 오후 3시 40분이다.



▲ 선교 전략회의를 하는 방글라데시팀.

수단팀 27일(토) 출발

D-5 중환기도원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수단을 위해, 서로를 위해 밤새 부르는 단기선교팀원들을 보며 하나님께



▲ 매일 교회에 모여 기도회와 사역을 준비하는 수단팀.

서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 믿는다.

D-4 매일 오전 10시에 교회에 모여 기도회와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하고 아랍어와 영어로 찬양과 율동을 연습했다.

D-3 드라마예배를 연습하고, 수단에 가지고 갈 여러 가지 물품을 정리했다.

D-2 마지막 주 점검을 하며 다시 한번 기도회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D-1 금요일집회에서 아랍어와 영어로 찬양하였다.

D-day 교역자 회의에 참석하여 사역 기간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전 9시 교회 버스로 공항을 향해 출발, 12시 45분 비행기로 수단을 향해 떠났다. 13화 14일 동안 단기선교팀원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제2회 이집트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 보고

1998년 6월 16일부터 3박 4일간 이집트 포트사이드 복음교회 수양관에서 실시된 금번 세미나에는 목회자의 영성개발과 교회성장학을 주제로 총 54명의 현지인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후원과 협력의 힘입어서 은혜 중에 마치게 되어 감사함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집트 이준교 전신사도 드림)

그리스도의 향기

선교 한국을 기대하는 믿음의 친구에게

6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영수(가동기)

그리스도의 향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벧전 2:9)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저를 찬송할지어다"(시 117:1)

생일날 장미꽃을 선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제각기 비슷한 행동 또는 같은 행동을 연출한다. 그 행동이라는 것은 장미꽃에 코를 가까이 대고 '윽' 하고 숨을 들이 마시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장미꽃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으니까! 그 향을 들이 마신다고 말한다. 나 또한 그러 했으리라. 만일, 장미꽃에 향기가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정말 난감한 질문이다. 아니 어쩌면 쉽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쉽다는 것은 그 장미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장미꽃 대신 다른 꽃들을 선택할 것이다.

향수! 요즘 신세대들에게는 향수가 기호품이 되어 버렸다. 싸게는 몇 만원부터 시작하여 비싸게는 수십만원 하는 것까지 수 없이 많고 다양한 종류의 향수가 우리를 주위를 맴돌고 있다. 이젠 그 향수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문화가 되어 버렸다. 향수는 아름다움을 느끼라고 만들었다. 그러나 반대의 효과도 볼 수 있다.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혹은 공공장소에서 향수가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세대들에게는 향수를 빼 놓을 수 없다. 그들의 대화중 향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 향기 좋은데, 무슨 향수야? 어디까지? 얼마짜리야?' '.....' 그들은 주저 없이 얘기한다.

이제 향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향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땅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 2:15)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향기"(Aroma of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가지고 있다. 저마다 조금씩 양과 향은 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같은 과에 속하는 향기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교제를 나눌 때 한두면 좁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을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어쩌면 무감각하게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잊은채 여기저기서 '부흥! 부흥! 부흥'을 외치고 있다. 지금 이 때가 부흥할 때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분명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얼마만큼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저마다 말은 일과 하고 있는 일은 다르다.

나는 여기서 찬양이라는 향기를 말하고 싶다. 찬양을 좋아한다. 먼저 하나님 찬양을 말하기 전에 세상문화를 생각해보자.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요즘 기독교 음악이 자리를 잡기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신세대들은 기독교 음악(찬양가, 가스펠송 등)보다는 대중음악을 더 좋아한다. 내 이런 코카도 기독교 음악보다는 대중음악을 더 즐겨 부른다. 어느덧 우리들 주위에 있는 현상이 되어 버렸다. 두렵고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한 현상들이 더 커지면서 어떡하나 하는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세계가 점점 더 하나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네트웍, 위성방송 등 세계가 바로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 또한 그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가스펠송보다는 대중가요나 팝송을 더 즐겨 듣고 좋아 했었다. 그러나 어느때부터인지 내 영혼을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전 바로 하나님 찬양이었다.

늦은 시간 침으로 돌아가는데 길거리에서는 대중음악과 팝송들이 들리다가 큰소리를 내며 흘러 나왔다. 강남역 주위에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담아 본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 있을 것만 같았다. 이 땅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잠깐이나마 '이 땅을 구출히여주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내심 두려움이 컸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알기 전부터 움직이고 계시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있었다. 악파와 소수로 가득한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깨어지고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이 우리에게 찬양을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성경은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일어서 때를 맞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할 그 날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라.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라"

아직도 갖가에 생명이 들리는 그 날의 감동이 가슴벅차게 합니다. 솔직히 그 날의 감동들과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이 어쨌든 글 솜씨로 표현한다는 것엔 우리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렵게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선교한국이란 말 자체를 처음 대했다면 이 순간 이 대화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96년 여름, 처음 알게 되었고 이 모임에 기대를 갖게 해주신 분이 님이신 성경공부를 인도해 주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솔직히 이것 저것 선교에 대한 정보는 교회의 기관과 선교기도모임인 새문자를 통해서도 접했지만 저의 역할이 딱 이거다 하는 기분이 세워지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해 잘 몰랐던 제게 선생님께서는 비전전략을 위해 단기선교를 떠나기보다는 먼저 선교 전반적 현황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저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과 선교적 기본 마인드를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고, 그것을 위해 이것 만큼 더 좋은 모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기대감에 선교한국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 1주일이라는 휴가를 얻기 위해 직장인으로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값 때문이었을까? 8천원을 목표한 큰 대회의관 기대 때문이었을까? 저는 열악한 환경 일거라는 예상은 전혀하지 않았던터라 저의 환경적, 내용적 모든 면을 만족 시켜 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처리야 할 대가" 3가지 등을 통해 낙담했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도전하셨고, 1주일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내면 깊은 곳에서 확인하고 싶어했던 고뇌의 질문들에 응답을 받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확인 받고 마음을 건고히 할 것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을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기도함주회의 능력과 해외 선교의 현장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생생한 간증, 사역의 다양한 모습, 미전도 종족 입양 등등 저의 무지를 깨우고 영혼의 고갈로 오는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저와 같은 아나 그 이상의 은혜를 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라 피도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발목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피치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사 54:23)

이 기간에 동참하는 우리의 선택은 여호와이레의 간증이 되리라 믿습니다.

1998. 6. 28 주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친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작은사랑음악회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조 성 수(집사, 임마누엘찬양대 총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라는 성구와 주제는 임마누엘찬양대가 올해 이루려는 목표이다. 임마누엘찬양대는 여느 찬양대와 마찬가지로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작은 음악회가 발전하여 만들어진 작은 사랑 음악회는 예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교회의 역할 중 일부분을 담당하여 대원 모두에게 하나됨과 감동을 주는 행사이다. 97년에는 부스리전교회 소속 위기-결은 가정의 어린 이웃(150명)을 교회로 초청하여 꿈과 희망을 주었으며 올해에는 서초구청에서 개최되는 서초 금요음악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참가 신청을 하며 교회의 허가를 득하였다.

4월 초 막내 아들인 정하에게 B세로 악성 임파종이라는 소아암이 발병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추후에 교대 임무를 인수있게했다. 게다가 구정에서는 6월과 7월에는 지방과 보령까지 두 번째 구정행사는 음악회를 개최할 수 없고 자체 행사만 가능하겠다고 하여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야 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위임목사님 기도와 교구 목사님과 식구들은 아멘기도, 찬양대원들과 비티곤의 중보기도는 어떻게 지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던 정하의 병을 오전 시까지 모든 장의 암세포가 50%로 줄어 식사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정상적인 신진대사로 퇴원하

지 가능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날짜만 결정되고 담보상대였던 작은 사랑 음악회가 대장 자신들 장로님의 좋은 의견으로 교회와 다른 부서와 협조하여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구정 내에도 다른 파트인 서초구청 신우회를 준비시켜서 신우회, 4교구, 임마누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새로운 하모니를 창출하도록 역사하셨다. 음악회 당일 곳은 날씨에도 생활보호대상자, 미화원, 평소에도 기도로 품었던 태신자들이 오셨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음악과 복음을 선물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여러 은혜를 경험하였다. 기독교 회화를 통한 회화를 배웠고, 복음 증거를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지혜를 터득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연습 중 하나되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들 정하가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 속에서 눈에 띄게 회복되는 크신 은혜를 받기도 했던 것이다. 음악회가 끝난 늦은 시간 마지막까지 수고한 대원들은 “좋은 시간”을 찬양하며 감동과 감사의 밤을 누렸다.

행사를 하라하신 교회와 도와 주신 모든 지체들, 사무구, 홍보실, 음영실, 4교구 식구들, 서초구청 신우회, 여수론 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임 즉 성(집사, 제4교구·바울전도회 부회장)

순을 잡는 순간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후원으로 행사기획, 진행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들이 스쳐간다. 총현교회 임마누엘찬양대·오케스트라의 작은 사랑 음악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손을 올리는 귀중한 행사였다.

4교구는 평소 전도회 중심으로 개인 전도에 힘을 모으고 있던 중 총현교회와 아닌 서초구민회관에서 전도대상자를 초청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는 위임목사의 격려 말씀에 힘을 입어 교구장 황영일 장로를 중심으로 몇 차례 기도회를 가진 대원들도 평일인 토요일 밤 800석이나 되는 자리를 메우는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이 행사가 세상 사람들 눈에 2부 찬양대 주체 4교구 후원 행사가 아닌 총현교회의 행사로 보일 것이라는 박필대 전도회장의 주문은 모두에게 힘을 주었다. 우리는 통성기도와 금식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서초구청 신우회(산돌회)를 찾아 방문하였다.

취지와 진행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을 때 신우회장 (토목과장)은 같으셨다며 “먼저 믿는 우리 모두가 하이라 할 일이지요” 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먼저 각 동별 소외당한 이웃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따뜻한 음식과 선물까지 몇 번이나 점검을 마치고있던 비내리는 토요일. 하지만 그동안의 격정과 수고의 결실은 국민연말의 ‘감동’의 무대, 일천명 참석의 ‘성가’에 매료 하는 보도 기사와 같이 청중이 가득한 가운데 소외받은 이웃의 감동으로 맺어졌다. 그리고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복있는 사람’과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향기로온 찬양의 밤이라는 감성관 위임목사님 말씀이 새삼 생각나게 하는 찬양의 밤을 장식하는 의미있는 축복의 노래가 되었다.

이 단

여호와 새일교단

정 현 민

(목사, 16교구·장년부·별조인전도회·도시정착회 지도)

우리나라의 이단종파들은 대부분 돈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계몽산울을 들 수 있습니다. 정감록에 의하면 계몽산은 말세에 화를 면하고 어떤 난리를 만나도 안전한 곳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즈 중얼부터 사람들이 부흥자들이 세상의 되어질 일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종파들의 매개’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루게 될 여호와와 새일교단도 계몽산에서 발생한 93개의 이단종파가운데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새일교단은 특유한 말세론으로 한국교계에, 특히 부흥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이단종파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계의 신비주의에 있어서 가장 광활한 땅에서 여호와와 새일교단의 체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주 이회자

이회자(본명: 이우성)는 황해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생후 7일만에 부친은 세상을 떠나고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인성의 중박과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생각할 정도로 조숙한 그는 당시 30리밖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성경 한 권을 얻어가지고 와서 탐독하던 중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후 미국 선교사의 소개로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에 입학했다가 입산기도중 성령충만을 체험하고 종말론

인 계시록을 깨닫자 신학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신학교 3학년 중퇴 후 1964년 여름 계몽산에서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가지면서 새일교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 새일교의 원리

여호와 새일교는 이회자가 신적 계시를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 ‘12신조와 7원리’를 여호와와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호와 새일교는 교주 이회자가 신적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풀이한 ‘말세비밀의 원리’를 그들의 신앙적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회자가 1958년 칠성 기도 중 영감이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요한계시록 4장-14장까지의 해석을 알려 주셨고 그것을 발마적으로 하는 명령에 따라 이회자가 옮겨 적은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새일교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그들의 종교적 풀이에서 원리를 삼고 있으며 그들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교주 이회자의 주장을 합리화 시키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며, 해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메시아론

그들에 의하면 이회자가 말세 비밀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방에서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원리에서 ‘말세비밀의 원리’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를 인용하여 하나님의 경전이 동방에서 이루어지며, 이사가 41장 9, 25절의 말씀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컫어 북방에서 오게 하며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리라’를 해석하여 북방을 이회자의 고향 황해도이며, 해돋는 곳은 동방 나라, 즉 우리나라를 가리킨다고 성경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41장 9절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며, 땅 끝과 땅 모퉁이라는 말씀을 사용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그분의 주권에 있으며 어떤 지역이나 인종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땅 끝, 곧 이방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쫓아온대 있는 어떤 인물로 말씀한 적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말론

여호와 새일교의 종말론은 한 마디로 ‘다림줄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회자의 종말종교는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법을 주셨고 법을 따라서 역사하며 종말의 제왕은 다림줄의 진리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다림줄은 목수나 석공들이 바를 죽임을 위해서 사용하는 줄자를 가리키나 다. 따라서 다림줄의 진리는 진리와 비밀의 진리를 판단하는 잣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의 기준을 1968년 5월 27일 오전 7시에 이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화 소개하면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이회자와 그의 종말종교들이 심판을 면하며, 특별히 계몽산 새일수도원으로 도피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고 하며 메시아는 계몽산에 있는 새일수도원에 제왕하시며 그곳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허무맹랑한 이론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시간과 장소와 그 날을 성부 하나님의 예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마 25:13).

이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새일교단은 후세무단의 종말론에서 출발했고 다른 이단인 그러한 것처럼 한 교주의 주관주의적 신앙으로 많은 영혼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가짜종교, 가짜사회를 면하여 계몽산에 집단 거주하는 현실 도피적이며, 자기 도피의 의외의 세계만 동경하는 광적 신비주의 집단입니다.

지체들 소식

지체들 소식

영아부

예수님의 사랑은 산생님들이 모인 곳
영아부 교사들은 매달 첫째주와 셋째주에 성경공부의 사랑을 나누며 아기들을 다 잘 지도하기 위해 공부한다. 성경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은 정말 반갑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주시는 산생님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눠 주는 우리 영아부 산생님들 기쁨이 가득가득하다. (송혜정 통신원)

초등부

성경학교, 외보시라니까요!

오늘은 초등부에서 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시청과 교육으로 영화를 본답니다. 내용은 말할 수 없이 신적절과서 보세요. 그리고 아모스, 이사야, 에스라 세 팀으로 나누어서 과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가셨는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남남, 찻집 맛있는 저녁 식사 후에는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감사 드린 다음에 첫째 날의 가장 핵심인 전로역정전국 여행으로 돌아간답니다. '소망의 문'에서 출발하여 '현제'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문을 지나 '죄의 강'이라는 문, '은혜의 동산'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들이 은혜로써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절정'으로 여행하며 마지막으로 '천국 잔치'에 초대받게 됩니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부

산생님, 수고했어요!

지난 1학기에 있는 정원과 산생님에게서 수고하시는 믿음14번에서, 이번 2학기는 남중초 산생님에게서 수고하시는 사랑33번에서 연구수업 공개가 있었다. 많은 산생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서 수업에 나오는 산생님이나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배워 승락하고 우리 모든 교사를 대표해서 수업 공개에 임하신 두 분 산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어도 수업에 임하기 몇 주 전부터 수업한 짜서와 말씀 준비하시라 필름과 부담스러우셨지만, 시간 관계상 수고하신 산생님들께 간단한 박수로 우리의 마음을 대신 했지만 그 박수 속에 우리 산생님들의 또다른 다짐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산생님, 우리 때로는 눈물도 안나를 만들 힘들더라도 또 수업 공

개도 하고 여름수련회도 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무능함이 가라지고 진정한 겸손이 찾아올거예요! (나성애 통신원)

중등부

7월 27-30일 중헌기도원에 와 보세요

무슨 일이 있나구요? 중등부에서 여름수련회를 합니다. 강사는 이종경 강도사님이시구요. 주제는 '찬양하라 네 영혼아' 이예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중3 학생들이 모일 겁니다. 우리만 이 좋은 잔치에 참가하는 것이 못내 아쉬워 중등부를 나오지 않는 같은 또래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중학생으로는 마지막 여름 방학을 아주 기쁘고 귀하게 보내기 위하여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 보세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예요. (송미경 통신원)

고등부

낙도 전도를 위한 기도회

경남 거제도 어구교회의 화도 화도교회로 지도 조문한 목사님을 비롯한 12명의 교사, 32명의 학생들이 전도를 나갑니다. 복음 전도와 어린이성경학교, 농촌 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 활동이 이들의 주요 활동인데요, 이를 위해 매주일 오전 9시 20분 아멘콜과 오후 4시 고등부 교무실에서 지도 조문한 목사님의 인도로 참가 학생들과 고등부 회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낙도 전도는 고등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많은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최옥화 통신원)

장년부

오늘은 총동원주일

장년1부에서는 오늘을 총동원주일로 지킨다. 이를 위하여 6월 한 달 동안 장년1부에서는 많은 양을 파악하여 전파하고, 1인 1명 전도 운동도 전개하였다.

예배마다

성경이아기대회

지난 주일(6월 21일) 예배 후 성경이



아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배운 공과 내용이나 설교 중에서 주제를 선택하여 다채로운 내용을 각 반별로 발표했다. 성경이야기는 솔로몬 왕의 지혜, 다윗 왕의 회개, 다니엘의 기도, 요나 선지자, 달나라를 다녀온 주 제물에서 구성되었으며, 2주 전부터 생애와 함께 연습하여 만들어졌다. 이날 학생들은 말하기와 수화하기, 마임, 연극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하였으며 그림과 글씨, 그리고 OHP를 이용한 시각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 발표 내용을 누구나 잘 이해하도록 준비하였다. (변창대 통신원)

새가족부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에 대한 진지함

매월 마지막 주일에 있는 학습과 세례식을 위해 준비하는 세례반 주일은 새가족부 교사들이 매우 긴장을 하는 날이다. 특히 세례반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세례문답을 하고 있는 각반의 새가족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삼삼오오 모여 있다.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에 대해 그간 거듭 올린 것을 지도 목사님 앞에서 담담히 명확하게 믿음으로 대답해 주기를 바라며 시험 결과를 기다리다 지겨 보고 있다. 새가족 성도들은 목사님 앞에서 긴장을 하는 탓일까 명확히 대답하기가 못했기거나 없었기 때문이다. 주일을 미안해 하듯 겸손하게 대답하기 때문에 목사님께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시고 그 그들의 고백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시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교사성경공부 시간 목사님께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새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고 주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길 기도함. (한숙정 통신원)

15교구

한나회원들의 아름다운 봉사

지난 6월 18일 가족들조차 외면하여 버린 신지체장애자들을 모아 젊은 목사 부부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평범 열린 선교회에 한나15교회 전도회교인 14명이 찾아갔다. 하루만이라도 봉사하리라 마음으로 너그러워 후원교회와 맥, 과일들을 가득 담고 달려갔다. 미리 전갈을 받아서인지 그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어 예배드린 준비까지 하고 있었기에 회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체하며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었다. (한혜정 통신원)

17교구

외국인 근로자초청 전도집회



17교구 요한전도회는 지난 6월 20일(토) 외국인 근로자 44명을 초청하여 전도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온 근로자들로서 한국에서의 험난한 생활 중 전도와 사랑 및 복음의 초청을 받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나누었다.

중헌복지단

사랑을 나누는 여름 음악회

7월 2일(목) 오후 5시 가나눔에서 비하우스셀로 앙상블 초청 여름음악회를 개최한다. 호응하는 이들의 뛰어난 기예에 넘치는 감사와 장예의 베풀어지는 사랑의 어울림이 함께 만나는 이 음악회에 성도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마이크’는 이렇게 사용합시다

- 예배용 마이크 설치와 사용자들을 위하여 -

마이크는 적당한 거리와 음정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조준을 하여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마이크는 지향성 마이크로므로 입과 일치시킨 것이 가장 좋은 감도를 나타내지만, 입의 바람이 센 사람은 턱과 마이크 방향이 직선이 되도록 사용하면 펍 펍 소리를 제거할 수 있다(그림).

감도가 높다

턱에 조준시 펍 소리가 제거된다.

턱에 조준시 펍 소리가 제거된다.

턱에 조준시 펍 소리가 제거된다.

턱에 조준시 펍 소리가 제거된다.

턱에 조준시 펍 소리가 제거된다.

마이크의 바람직한 설치와 사용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설치자는 설교자의 중심으로 마이크를 설치하며, 마이크의 키와 음성, 습관을 고려하여 마이크의 거리와 높이, 소리의 크기, 음정을 조절한다.
- 사회자와 기도하는 분들은 설교자를 위하여 설치된 마이크를 가끔씩 조절하지 않고 몸을 숙이거나 발꿈치를 들고 사용하며 무뎉어진 경우, 사용 후 원 위치로 돌려 놓음으로 최적인 마이크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설치자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용 후 점검도 중요하다. 마이크와 선, 기기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뒤로 있다.
- 간담용 마이크는 강대용으로도만 사용한다.
- 단상 마이크를 사용할 때 단상 마이크는 놓는다.
- 본당을 제외한 교육부서 마이크(은혜 계통의 마이크)는 거리를 좁혀 10cm(주된 한 개 시) 정도는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마이크는 침 때에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마이크를 바닥으로 향하여 알콜로 닦아 준다(1회 이상).
- 모든 기기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전력 낭비, 화재, 교장의 원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하기 전 기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누는 간증에는 기쁨과 은혜가 두 배

우리는 날마다 숨을 쉬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잔잔히 우리를 향해 옵니다. 그러므로 간증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평강한 간증은 비록 얕아도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부러운 간증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은혜를 두 배로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증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주간증헌에 간증의 글씨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모든 분들의 처음에는 조금 속스러웠지만 자신의 간증에 있어 분들의 힘을 얻는 것을 보며 기쁨과 은혜가 두 배가 되었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주간증헌에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에는 너무 작은 간증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간증헌 편집실(552-8200, 교한 342, 348, 팩스 563-39322)로 연락해 주십시오.

